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공폭포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봉 (명절특별행)IC 영수증 프린트 서비스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ashy.co.kr 0801-320-7700

‘지존’ 신지애 3위 - ‘3주 연속 퀸’ 서희경 4위

첫날부터 ‘불꽃 샷’

SK인비테이셔널 1R

이정은 ‘깜짝 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와 4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서희경(22·하이마트)의 대결이 첫날부터 불을 뿜었다.

일본 원정에서 돌아온 신지애는 19일 경기도 이천 BA비스타 골프장(파72·6천471야드)에서 열린 SK에너지 인비테이셔널 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5개로 4언더파 68타를 쳐 선두에 2타 뒤진 3위에 올랐다.

선두는 보기없이 버디 6개를 쏟아내며 6언더파 66타를 친 이정은(20). 2006년에

프로에 입문한 이정은은 7월에 열린 MBC투어 레이크사이드 여자오픈에서 11위를 차지한 것이 올 시즌 가장 좋았던 성적이다.

신지애가 일본 대회 출전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3주 연속 우승으로 상승세를 탄 서희경도 신지애와 같은 조에서 샷 대결을 펼치며 3언더파 69타로 공동 4위에 올라 광범한 접전을 예고했다.

신지애는 6번홀(파4)에서 1타를 잃었지만 7번홀(파4)과 8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전반에 언더파 스코어를 만든 뒤 후반들어 버디 3개를 추가했다. 특히 신지애는 15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홀 두뎀거리에 붙이는 절묘한 아이언 샷으로 버디를 낚아 갤러리들의 갈채를 받았다.

서희경도 2번홀(파4)에서 보기를 했지만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버디 4개를 골라내며 신지애와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다.

서희경은 상금 랭킹 1위 신지애(4억2천600만원)에 8천200여만원 뒤진 2위를 달리고 있어 우승 상금 1억원이 걸린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역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올 시즌 2승을 거둔 김하늘(20·코오롱)도 보기없이 버디 5개를 골라내며 5언더파 67타로 2위에 올라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해외와 중에서는 2006년 대회 우승자 홍진주(24·SK에너지)가 공동 7위(2언더파 70타)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US여자오픈 챔피언 박인비(20·SK텔레콤)는 공동 73위(3오버파 75타)로 밀렸다. /연합뉴스



“ 훌륭하게 잘 싸웠어요 ”

19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열린 제13회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팀 코리아’ 해단식 및 귀국환영행사에서 김성일 선수단장이 선수단기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반납하기에 앞서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호 ‘긱’ ... 7경기 연속 무실점 호투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의 박찬호(35)가 7경기째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박찬호는 19일(한국시간)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방문 경기에 3-3으로 맞서던 9회 말 팀의 4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1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팀 승리에 기여했다.

첫 타자를 땅볼로 잡아낸 박찬호는 두 번째 타자 라울 차베스에게 우전 안타를 허용

했지만 대타 라인인 다우밋을 투수 앞 땅볼로 유도, 투수-유격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을 이끌어내며 이닝을 마쳤다.

그러나 박찬호는 10회말 위기를 맞았다. 첫 타자 나이지 모건이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뒤 다음 타자의 희생번트로 2루까지 진루했고 네이트 맥라우스는 고의사구로 출루해 1사 1,2루의 상황이 됐다. 이어 피츠버그의 제이슨 마이클이 친 투수 앞 땅볼을 박찬호

가 2루로 던져 병살을 유도했지만 공이 2루 옆으로 비껴가면서 2루수 블레이크 드윗이 베이스에 발을 붙이지 못한 채 가까스로 공을 잡아냈다.

이 틈을 타 2루주자 모건이 3루를 돌아 홈으로 달려들었고 2루수 드윗은 정확한 송구로 주자를 홈에서 아웃시키면서 박찬호는 패전 위기를 넘겼다.

박찬호는 직후 조 바이엘과 교체됐고 바이엘은 실점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박찬호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80(종전 2.85)으로 낮아졌다. 다저스는 12회 초 뽑은 1점을 잘 지켜 4-3으로 승리했다.



‘독 오른 피들이’

도르트문트의 이영표(왼쪽)와 우디네세의 시모네 페페가 19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벌어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우디네세 칼치오(이탈리아)간 UEFA(유럽축구연맹) 컵 1라운드 경기 중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표 ‘주전 굳히나’

UEFA컵 풀타임 맹활약 ... 팀은 0-2 패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로 이적한 이영표(31·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2008-2009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컵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주전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영표는 19일(한국시간) 도르트문트 시그널 이두나파크에서 열린 우디네세(이탈리아)와 UEFA컵 1차전 홈경기에서 왼쪽 수비수로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14일 살게04와 정구리그 4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한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 이영표는 왼쪽 풀백으로 나서 중앙수비수 네벤 슈비치치, 마츠 홀름스, 오른쪽 풀백 안토니오 루카비나와 포백 라인을

형성했고 적극적인 수비와 빠른 측면 돌파에 이은 날카로운 크로스를 몇 차례 보여줬다. 위르겐 클롭 도르트문트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소속팀 주전 자리를 예약한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그러나 경기 시작 8분 만에 우디네세의 공격수 안토니오 플로르 플로레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전반 34분 괴간 인라에게 추가골을 허용해 0-2로 무릎을 꿇었다.

도르트문트는 홈경기 패배로 다음 달 3일 열리는 우디네세와 원정 경기에서 두 골차 이상 이겨야 2라운드에 진출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프랑스 무대 데뷔전에서 골 맛을 보면서 ‘스타 탄생’을 예고한 박주영(23·AS모나코) 출전 경기를 직접 보려고 23일 프랑스로 떠난다.

1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허정무 감독, 정해성 코치, 박태하 코치 등 코치진과 기술위원 1명이 22일부터 유럽과 선수들의 컨디션과 기량 점검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허정무 감독이 직접 박주영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허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북한과 1차전을 앞두고 ‘컨디션 난조로 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

데이비스컵 테니스 16강 ‘파란불’

한국, 네덜란드 1번 주자 하세 결장에 단식 1승 쉬워질 듯

남자테니스 국가대표전인 데이비스컵 월드그룹 플레이오프에 나선 한국 대표팀 임규태(27·삼성증권)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단식 세계 랭킹은 485위로 대표팀 4명 가운데 가장 아래지만 첫날인 19일(이하 한국시간) 에이스 이형택(32·삼성증권)에 이어 2단식 주자로 경기에 나서게 됐기 때문이다. 상대인 네덜란드에서 가장 높은 랭킹에 올라 있는 로빈 하세(97위)가 무릎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2번 주자인 임규태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데이비스컵은 첫날 두 단식에서 양국의 1,2번 주자가 서로 엇갈려 맞붙은 뒤

마지막 날에는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맞대결을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네덜란드의 1번 격이었던 하세가 빠진 상황에서 임규태는 실질적으로는 네덜란드의 2번, 3번 선수와 싸워야 한다.

이형택은 하세가 빠지면서 원래 목표였던 단식 2승을 보다 수월하게 쟁길 수 있게 된 정도라면 임규태는 기대하지 않았다. 1승을 거둘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관세를 좌우할 열쇠를 손에 쥐게 된 셈이다.

첫날 상대는 제시 후타 갈롭(181위), 마지막 날은 티에모 데 바카(252위)다. 지금 랭킹은 485위까지 밀려있지만 지난

해 11월 개인 최고 랭킹인 223위에 올랐던 임규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 볼 만한 상대들이다. 셋째 날은 특히 마지막 단식에서 임규태는 실질적으로는 네덜란드의 2번, 3번 선수와 싸워야 한다. 물론 이틀째부터는 경기 시작 1시간 전까지 선수 교체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로서는 임규태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네덜란드의 월드그룹 플레이오프는 네덜란드 아펠도른 옴니스포츠센터 특설코र्ट(실내 클레이)에서 19일 밤 8시 제1단식을 시작으로 20일 복식, 21일 마지막 단식 두 경기로 이어진다.

월드컵 골프 예선 라운드

한국대표팀 이틀째 선두

월드컵골프대회 본선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 예선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이틀 내리 선두를 달렸다.

김형태(31·테일러메이드)와 배상문(22·캘러웨이)이 호흡을 맞춘 한국은 1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코타페르마이골프장(파72)에서 포섬 방식으로 열린 월드컵 예선 2라운드에서 이븐과 72타를 쳐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로 1위를 지켰다. 난생 처음 포섬 방식 경기를 실전으로 치른 김형태와 배상문은 버디 4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 등을 묶어 날뛰기 경기를 펼쳤다.

대한 배구협회장에

한나라 임태희 의원

임태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장영달 전 국회의원의 조기 사퇴로 공식이 된 대한배구협회장직을 맡게 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를 방문한 배구협회 회장추대위원회(회장 고광삼 광주시배구협회장) 인사들과 면담에서 회장직 수락 의사를 밝혔다.

배구협회는 내달 2일 오후 6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신임 회장은 장 전 회장의 잔여임기 3개

월과 원 임기 4년 등 향후 4년3개월간 배구협회를 이끌게 된다.

서울 경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임 정책위의장은 행정고시(24회)를 통해 관계에 입문, 대통령비서실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지역구(성남 분당)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에 성공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에 이어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맡아 정권 핵심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 20일(토)
- ▲2008 PGA 바이킹 클래식 2R(08:00·SBS스포츠)
 - ▲2008 메이저리그<뉴욕M>: 애틀란타(08:20·XSPORTS)
 - ▲2008 WTA 테니스(13:00·SBS스포츠)
 - ▲2008 AVC 아시아컵 남자배구<대한민국>: 이란(13:00·MBC ESPN)
 - ▲2008 한·중 투어 KEB인비테이셔널(13:50·XSPORTS)
 - ▲2008 SK 인비테이셔널 골프(15:00·MBC ESPN)
 - ▲2008 프로야구<우리>: SK(16:50·XSPORTS), <부산>: 롯데(16:40·SBS스포츠·MBC ESPN)
 - ▲2008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 한신(17:45·SBS스포츠)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선더랜

- 드: 미들스브로(20:30), <블랙번>: 풀럼(22:50·MBC ESPN)
- ▲2008 라이더컵(22:30·SBS스포츠) 21일(일)
- ▲2008 PGA 바이킹 클래식 3R(08:00·SBS스포츠)
- ▲2008 메이저리그<샌디에이고>: 워싱턴(08:00·XSPORTS)
- ▲2008 한국여자프로골프 인비테이셔널(11:00·XSPORTS)
- ▲2008 WTA 테니스(13:00·SBS스포츠)
- ▲2008 AVC 아시아컵 남자배구<대한민국>: 중국(13:00·MBC ESPN)
- ▲2008 SK 인비테이셔널 골프(15:00·MBC ESPN)
- ▲2008 프로야구<삼성>: LG(16:50·XSPORTS·SBS스포츠), <부산>: 롯데(16:45·MBC ESPN)
- ▲08/09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웨스트브로위치>: 아스톤빌라(20:30), <첼시>: 맨체스터Utd(21:50·MBC ESPN), 22일(월)
- ▲2008 라이더컵(01:00·SBS스포츠)